

## 노사상생으로 위기 넘자

상 지역 대기업들 또 파업 불씨

## 유럽발 악재…지금은 힘 모을때

지역 산업체가 심상치 않다. 화물연대·건설노조의 파업 사태가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금호타이어·기아자동차 등 지역 대표 사업장 노조가 파업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라는 대형 악재를 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대기업들이 파업이라는 또 다른 악재에 휩싸인 것이다. 내수외환에 빠진 지역경제의 돌파구와 노사 상생 협력을 모색한다.

## 금호타이어 10~11일 경고파업

## 2년 무분규 기아차도 협상결렬

삼성전자가 4년만에 '위기경영'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남유럽시장 포기 등 유럽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초기축 예산을 편성, 하리띠를 풀라왔다.

유럽 재정 위기가 부른 지역 연고 기업들의 생존 몸부림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파업'에 물들하고 있다.

지역 대표 사업장인 금호타이어와 기아차 노조는 오는 10~11일 이를간 경고파업과 쟁의행위 천반투표를 각각 예고했다. 13일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에 맞추어 짜맞추기식 행보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워크아웃(기업개선사업)의 전제 조건인 노사동의사·특별합의서를 파기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천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 10일과 11일 근무조별로 2시간씩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12일 오전조부터 공정별로 2시간 순환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 ▲워크

아웃 기간동안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5%)·상여금(200%) 회복 ▲성

과금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지난 4일 광주지법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교섭 재개 의지를 밝히며 협상테이블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법정으로 까지 번져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채권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해 파업 당시처럼 채권단이 워크아웃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가 다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의 행동은 더 당황스럽다.

지난 2년간 무파업을 이뤘던 기아차 노조는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10일과 11일 이를간 쟁의행위 천반투표를 실시한다. 13일과 20일에는 주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기본급 대비 8.3%)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간 연속 2교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 등 불량 만회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가 본격적인 협상에 진행되자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해 '정치 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통령선거라는 정치 특성을 이용한 금속노조·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치명적"이라며 "외적 위기다 닥쳤을 땐 내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사화합을

/박정우기자 jwpark@kangju.co.kr

2010년 광주지역 사업체 9만9976개·종사자 50만명

## 연매출 95조원·영업이익 8조3000억

지난 2010년 기준 광주지역 사업체는 2009년보다 828개 늘어난 9만9976개, 종사자 수는 1만434명이 증가한 49만92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95조3057억원, 영업이익은 86조 9818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32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지역 경제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이 27.2%(2만

7243개)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업 16.8%(1만6839개), 협회 및 단체·개인서비스업 12.9%, 운수업 9.4%, 제조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만7982명(15.6%), 제조업이 7만4555명(14.9%), 건설업 4만8402명(9.7%), 교육 서비스업 4만8127명(9.6%), 숙박 및 음식점업 4만6399명(9.3%)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 연간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이 31.4%(29조9120억원)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이 21.1%(20조

1060억원), 금융 및 보험업 16.6%(15조8624억원), 기타 업종이 30.9%(29조4260억원)를 차지했다.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중은 회사법인(74.5%), 회사 이외 법인(13.0%), 개인사업체(11.9%) 등의 순이었으며,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은 10~49명 사업체가 29.0%(27조6000억원), 300명 이상 19.1%(18조1810억원) 순이었다. 영업이익률은 1~49명 사업체가 19.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산업별 연간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이 31.4%(29조9120억원)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이 21.1%(20조

1060억원), 금융 및 보험업 16.6%(15조8624억원), 기타 업종이 30.9%(29조4260억원)를 차지했다.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중은 회사법인(74.5%), 회사 이외 법인(13.0%), 개인사업체(11.9%) 등의 순이었으며,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은 10~49명 사업체가 29.0%(27조6000억원), 300명 이상 19.1%(18조1810억원) 순이었다. 영업이익률은 1~49명 사업체가 19.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내달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제주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왕복항공권, 호텔숙박권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내달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제주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왕복항공권, 호텔숙박권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는 대출 중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금리를 높여 연장하거나 대출금 일부만 만기와 연장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던 금융은 이처럼 대출 만기 대거 돌아오는 등 가계

파산의 위험이 커지면서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000억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19조6000억원이다.

원금 상환이 시작된 분할상환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계가 보유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4.5대 1)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은행대출의 올



## 첨단 '중흥S-클래스' 최고 64대1

중흥건설은 5일 광주 첨단2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의 3순위 청약 결과, 784가구 모집에 모두 4879건의 청약을 접수됐다고 밝혔다. 84m² A형은 1순위 미감았고, 106m²형은 3순위 64.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일이며, 계약은 16~18일 광주시 서구 능성동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angju.co.kr

## 서울우유값 또 2.2% 올려 유제품 도미노 인상 예고

서울우유가 최근 우윳값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대형마트에 공문을 보내 흰 우유 출고가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최근 흰 우유 1ℓ 들이 제 품의 가격을 2300원에서 2350원으로 2.2% 올렸다.

서울우유는 작년 10월 원유(原乳)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남양유업, 메일유업, 빙그레 등도 잇따라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유업체들이 우윳값을 올리면 우유를 주원료로 이용하는 빵, 커피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다 최근 원유 가격이 증가하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아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올 만기 도래 가계 은행 빚 100조

## 기구당 평균 8000만원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약 100조원의 만기가는 올해 돌아온다. 빚을 진 가구당 평균 8000만원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대출 상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이나 경매처분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는 대출 중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금리를 높여 연장하거나 대출금 일부만 만기와 연장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던 금융은 이처럼 대출 만기 대거 돌아오는 등 가계

파산의 위험이 커지면서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000억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19조6000억원이다.

원금 상환이 시작된 분할상환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계가 보유한 담보대출과 신용대

출 비율(4.5대 1)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은행대출의 올

해 만기대출액은 98조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한다.

담보대출은 만기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 등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75.49 (+1.04)
▲ 코스닥지수	497.34 (+1.53)
▼ 금리 (국고채 3년)	3.27% (-0.01)
▼ 원·달러 환율	1,135.00원 (-0.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아이엘리시아**

족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 가지의 측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측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에게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백1**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칠만표 방수제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744-8605  
여수 654-7755  
서울 본사: 02-454-7722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